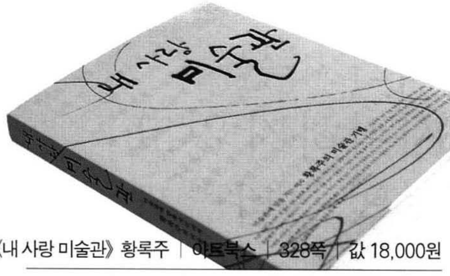
미술관은 삶을 발견하는 장소



《내 사랑 미술관》 황록주 | 아트북스 | 328쪽 | 값 18,000원

"점 하나 찍는 걸 우습게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 점 역시 작가의 치밀한 의도에 의해서 표현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같은 점이지만 다 다르잖아요. 재미있죠?"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로 유명한 고故 김환기 화백의 작품을 소개하던 황록주(27) 씨의 말이다. 최근 미술관 기행기《내사랑 미술관》을 출간하면서 미술관 알림이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그는 미술관에서 삶의 행복을 찾는 사람이다.

"처음에 책 자료조사를 하려고 갔었어요. 그런데 사장님과 미팅중에 직접 써보자는 말이 나왔죠. 어린이 교양서로 할까 하다가 제 맘대로 써보고 싶어서 글을 보여드렸어요."

책을 쓰기까지는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재학 시절부터 시와 평론, 사진 비평 등으로 남다른 재능을 선보인 그의 '끼' 가 큰 영향을 미쳤다. 미술에 대한 해박한 지식, 그것들을 맛있는 수다로 만들어내는 글솜씨 등을 출판사측도 인정하게 된 것이다. 결국 약 1년간 숨겨둔 애인을 만나듯 전국의 미술관 40여 곳을 직접 찾아다닌 그는 작품설명보다는 작품이 있는 '집' 으로 사람들을 안내해 보자는 의도로 미술관 기행을 택했다.

"어릴 때 하는 연상퀴즈, 퍼즐 맞추기를 생각하면 쉬워요. 그림 몇 장 보여주고 이야기를 만들어라. 작품 보는 것도 똑같죠. 사전 지식 전혀 없이 그림만 보고 문장을 만들어보면 재미있거든요. 물론 작가나 전시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고 가면 더 좋겠죠."

고정관념을 밀어내고 신세대적 입장을 들어앉힌 그의 책은 미술작품과 미술관에 얽힌 작가들 이야기, 그리고 황록주 씨 본인의 추억까지를 담백하게 담고 있다. 여기에 각 미술관의 특징을 보여주는 풍부한 도판, 미술관의 위치와 정보를 담은 해설 등이 친절한 가이드 역할을 한다.

"연애도 그렇잖아요. 미술관도 너무 쉽고 편하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미술관과 한번 붙어보겠다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들어가야 흥미로운 일이 생기죠. 그게 미술관의 매력이죠."

그 매력에 빠져 제 집 드나들듯 미술관을 찾는 그에게 좋아하는 작가 소개를 부탁하자 대뜸 글 쓰는 작가를 말한다. 알고 보니 그는 고교 시절, 문학서클 활동을 하면서 시인으로서의 꿈을 가졌던 문학소녀. 기형도와 백석의 열성팬이기도 한 그는 책을 통해서 백석의 시 〈통영統營〉을 소개하기도 했다.

"예술작품 하면 멀고 어렵게 느껴지는 게 사실이지만 눈에 들어오는 시각적인 환경은 기본적으로 다 미술이죠. 누가 데리고 가서 소개를 해주지 않아도 내 눈을 잠깐 멈추게 하는 것, 그런 것이 그림인 것 같아요."

그가 가장 난감해 하는 주문은 '가장 좋아하는 미술관을 말하라' 는 것. 자주 받았던 질문이지만 그는 아직도 열 아이를 둔 부모처럼 어디 하나 손꼽아 말하기를 힘들어한다.

"의제미술관을 많이 거론했었어요. 사실 미술관이라면 어디 하나 안 좋은 곳이 없는데…. 가까운 곳 중에서는 성곡미술관이 좋죠. 서울의 허파 같은 곳이거든요. 산책로 같아서 숨을 쉬게 해요."

약속 장소, 휴식 장소, 때로는 삶을 발견하는 장소로 미술관을 권하는 그는 현학적인 미술평론보다는 편안하면서도 전문성을 잃지 않는 글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한다. 큐레이터, 미술평론, 연구활동 등 다양한 꿈과 계획을 갖고 있는 매력적인 20대 여성. 햇살이 따뜻한 4월, 그의 안내를 받으며 봄나들이 겸 미술관과 데이트를 계획해도 좋을 듯싶다.

취재 김청연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